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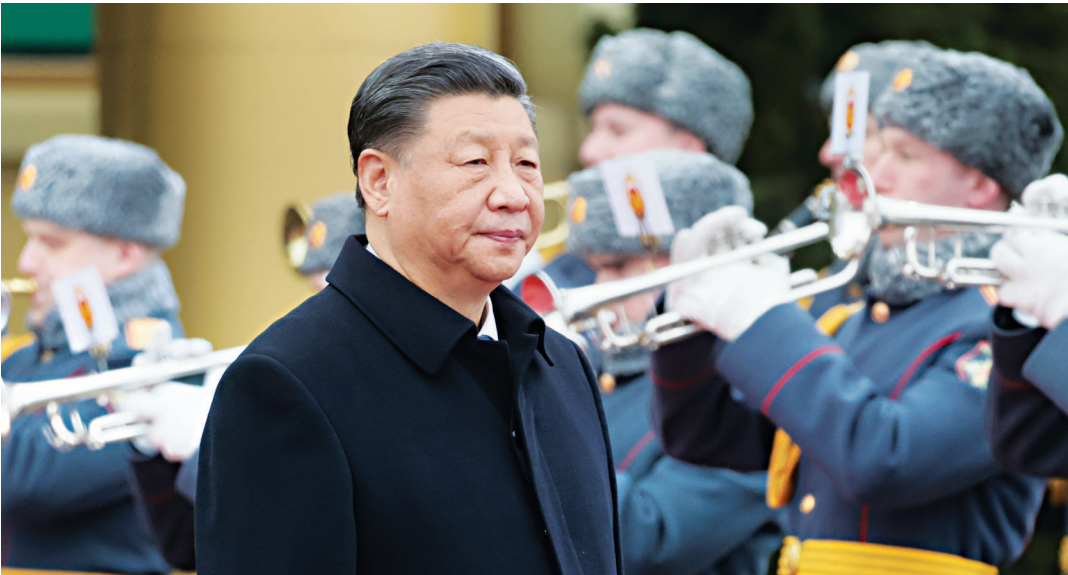
결속 다진 중·러, 러-유럽 가스관 폭파 규명부터 공조

중 “러 제기 조사 촉구안 지지”
덴마크·스웨덴, 폭발 주체 합구
러, CIA 개입설 보도에 조사 촉구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결속을 다진 중국과 러시아가 작년 9월 발생한 러시아-유럽 연결 가스관 폭파 사건의 진상 규명 문제에서부터 긴밀한 공조 태세를 과시했다.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며 제기한 결의안에 중국이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

핑에서 “러시아 측 결의안 초안을 지지한다”며 “유엔이 가장 권위 있고 대표적인 국제기구로서 국제 조사를 주관하는 것이 진상의 조기 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은 일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서방 회원국들의 태도에 주목한다”며 러시아가 제출한 초안 협의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건설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21일(현지시간) 열린 중러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도 노르트스트림 폭파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은 러시아에서 독일을 거쳐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발트해 바다 밑에 설치된 가스관이다.

지난해 9월 이 가스관의 4개 지점이 파손되면서 막대한 양의 가스가 누출됐다. 덴마크와 스웨덴 수사 당국은 강력한 폭발로 가스관이 훼손됐다는 잠정 결론을 발표했지만, 폭발의 주체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미국의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세이무어 허쉬의 보도가 파장을 불렀다. 그는 미 해군 잠수 요원들이 정부 지시에 따라 가스관에 원격작동 폭발물을 심었고, 미 중앙정보국(CIA)이 노르웨이와 협력해 이 폭발물을 터트렸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러시아는 유엔 차원의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 타임스는 23일 허쉬 기자가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노르트스트림 폭파 명령 주체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브누코보 국제공항에서 열린 배웅식에 참석하고 있다.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은 전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연합뉴스



쓰레기 뒤덮인 과테말라 강 '세계 물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현지시간)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에서 한 남성이 쓰레기로 오염된 라스 바카스 강을 보고 있다. 라스 바카스 강 상류에는 과테말라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지가 있어 장마철마다 매립지 쓰레기들이 강으로 흘러든다.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은 유엔이 1992년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고자 지정·선포한 기념일이다. /연합뉴스

인도 폭죽공장 폭발...9명 사망·18명 부상

인도 남부에서 폭죽공장 폭발 사고가 발생, 9명이 사망했다고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매체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남부 타밀나두주 칸 치푸람 지역의 한 폭죽공장에서 햇볕에 말리기

위해 건물 밖에 내놓은 폭죽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났다. 불이 창고로 옮겨붙어 공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으며 3명이 현장에서 숨지는 등 인부 9명이 사망했고 18명이 다쳤다.
공장 구내 작업 인원은 7~10명으로 제한돼

있지만, 폭발 당시 현장에는 27명이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TM 안바라산 타밀나두주 지방 산업 담당 국무장관은 “허가된 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현장에서 일했다는 점은 중대한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주 당국은 유족과 부상자 가족에게 각각 30만루피(약 469만원), 10만루피(약 156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 죄수 2명, 칫솔로 벽 허물고 탈옥

옆동네 팬케이크집서 잡혀

미국에서 수감자 2명이 칫솔을 갈아 만든 꼬챙이로 교도소 벽에 구멍을 내 가까스로 탈출했다. 하지만 이들은 멀리 가지 못하고 근처 24시간 팬케이크 식당에 들어갔다가 탈주 9시간 만에 붙잡혔다.
22일(현지시간) 미 방송 NBC뉴스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교도소 간수들은 지난 20일 오후 7시 15분께 인원 점검을 하던 중 존 가자(37)와 알리 네모(43)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 수감자들은 칫솔로 만든 꼬챙이로 교도소 건물 내벽의 취약 지점을 찾아내 허물어 벽 사

이에 떨어져 있던 철근을 주웠고, 이 철근으로 본격적으로 벽에 구멍을 내 건물 밖으로 나간 뒤 담장을 넘어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안관실은 보도자료에서 “두 남성이 칫솔과 금속 물체로 만든 ‘원시적 도구’를 이용해 교도소 건물의 약점을 공략했다”고 밝혔다.
탈옥범들은 극적으로 교도소에서 탈출했으나 멀리 가진 못했다.
이들은 약 11km를 걸어서 이웃 마을에 있는 24시간 팬케이크 체인점 ‘아이오퍼’에 들어갔다가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21일 오전 4시 2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체포된 뒤 별다른 소동 없이 뉴포트뉴스 교도소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성교육 금지 탈레반, 비밀학교 확산

여성의 교육이 금지된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밀 학교가 확산하는 등 탈레반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내부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이번 주 새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탈레반 최고지도자 하야바툴라 아쿤드자다가 최근 내부 세력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조용히 뿌리내리기 시작한 여학생들을 위한 비밀학교는 이러한 분위기를

기를 짐작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주로 주택을 공간 삼아 운영되는 이들 비밀학교는 일부 강제 폐쇄됐고 교사 1명이 임시 구금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밀학교를 조직해온 한 여성은 WSJ에 탈레반 정보 당국이 비밀학교 폐쇄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여성에 따르면 정보요원들이 그가 조직한 비밀학교를 찾아냈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불에 타지 않고 ●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합천 황매산 전망대

목포 노을공원 공연장

부여사비 창직지구

인제 갯골천 정비사업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에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 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사람과 자연의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충청남도 서북구 망향로 903-6 (오목리9)